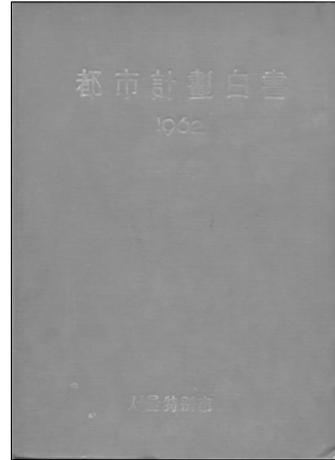


15 都市計劃白書 도시계획백서

1962년 / 김의원 / 535면 / R 02.10-20 도1962

이 「都市計劃白書」는 정확히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백서」로, 1962년 12월에 발행했다. 분량은 488면과 부록 47면, 합계 535면의 200부 한정판이다. 필자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연구원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것과 본인의 생각을 합쳐 단독 집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뜻에서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는 않는다.



1961년 5·16 혁명을 이룩한 혁명정부는 모든 면에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했었다. 서울특별시장직에 전 육군 공병감 출신인 현역 육군소장 윤태일을 임명했고 건설국장에도 현역 공병대령을 임명했다. 도시계획국을 신설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상임위원에도 예비역 공병대령 오한영을 임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직원을 공채(15명)했는데 이때 건축가 김수근이 신규채용되었는가 하면 필자는 연구위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都市計劃白書」 집필을 끝내고 윤태일 시장의 저녁대접을 받기도 했다. 이 「都市計劃白書」의 중요내용은 서울 도시계획의 연혁과 토지이용계획, 도로, 공원, 토지구획정리, 도시교통, 상하수도, 주택, 시장, 오물처리, 묘지, 화장장, 도시미관, 여가이용과 재해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都市計劃白書」가 발행된 것은 이것

이 처음이자 끝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백서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 『都市計劃白書』를 발행한 당시 서울시 인구는 300만 미만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 대통령도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시계획을 중지하라고 했던 담화사건이 그 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 대통령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후일 그 담화의 진의를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을 전면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 재벌이 충무로 도로계획에 저촉된 고충을 건의받고 한 말이란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은 1936년, 즉 일제 때부터 그어 놓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도시계획 폐지요망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의회도 10여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의 변경과 폐지를 결의하기도 했다.